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론



삼위일체로 오시는 하느님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교회는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대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초기 교회 때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삼위일체는 인간의 지혜로 다 알아듣기 힘든 신비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아드님과 성령과 함께 한 하느님이시며 한 주님이시나, 세 위격이 완전히 서로 구별되면서 동시에 한 신성을 이루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19-20)

삼위일체 교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사건의 역사적 체험을 통해서 얻게 된 하느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부이신 아버지 하느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통해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은 창조주이고, 세상의 주인이며,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항상 자비로이 지켜주신 아버지 같은 하느님입니다.

다. 나아가 하느님은 구약과 신약의 구세사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은 성자를 통해서 꽃을 피웁니다. 하느님 당신은 아버지의 모습만으로 머물지 않고, 성자의 모습으로 인류의 역사 속에 깊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성자는 우리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를 속죄 제물로 바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수그리스도이신 성자, 아들 하느님으로 부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시고 실천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그야말로 당신의 온 존재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전하셨던 분이십니다.

성자이신 아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당신의 일을 완성해 주실 협조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 하십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이며, 우리의 위로자요 협조자이고 보호자로 오셨습니다. 또한 성령은 진리의 수호자로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구원의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되새기게 하십니다(요한 14,26 참조). 교회 전체를 그리고 우리를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따라서 성령은 교회에 생명을 불어 넣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역사 안에서 체험한 하느님의 다른 얼굴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달라 보이는 하느님의 세 가지 얼굴은 같은 얼굴의 다른 모습일 뿐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 안에서 체험되어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느님 사랑의 본성이 쉽 없이 우리 인간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오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진리를 가르쳐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를 당신께로 인도 하십니다. 이러한 하느님 활동의 목적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느님께서는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향해 다가오시고 말을 건네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하느님의 간절한 부르심(사랑)에 울곧게 응답하는 것이 신앙인인 우리가 선택해야 할 몫입니다.

가톨릭상지대학교 김기현 모이세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교형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위일체대축일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초기 교회 때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교회는 삼위이시나 한 본체로서 한분이신 하느님을 신앙 안에서 고백합니다. 삼위로서 완전한 일치와 사랑을 드러내시는 하느님을 본받아 우리 모두 신앙 안에서 참된 일치와 사랑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이 전례에 참여합니다.

입당성가 : 81번 ‘영광의 주 성삼위’

본기도

† 하느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신 성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세상에 보내시어, 하느님의 놀라우신 신비를 인간에게 밝혀 주셨으니, 저희가 참신앙으로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영광을 알고, 오직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을 흠송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탈출기 34장 4절-6절, 8절-9절

안 내 : 모세는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운 하느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묵 상 : 하느님은 한없이 너그러우시고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타인에게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있는지요?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사는 주님의 사람이 됩시다.

화 답 송 : ◎ 세세 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제2독서 : 코린토 2서 13장 11절-13절

안 내 :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 교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묵 상 :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과 일치를 통하여 우리 모두도 하나된 마음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도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 받으소서.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 3장 16절-18절

강 론 : '삼위일체로 오시는 하느님'(1-2쪽)

예물준비성가 : 340번 '봉헌'

영성체성가 : 499번 '만찬의 신비'

영성체 후 묵상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진 것 무얼 나눠 주어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가장 친하고 편한 친구에게는
어떤 이야기도 스스럼없이 털어놓게 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도 이러한데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은 오죽하겠습니까

<침묵>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작고 약한 우리가 가늠하지도 못할 만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당신의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어
협조자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특권을 은총으로 주셨습니다.

<침묵>

하느님은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나
우리는 온전히 다 알아듣질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협조자, 동반자이신 하느님께 감사와 흠숭과 영광을 드리는
기쁘고 떳떳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83번 '주 찬미하라'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3,36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해 주세요.



알 림

■ 2017년 열린 성경 강좌 4

- 일시 : 6월 12일(월) 19:30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주제 : 루카 복음 4
- 준비물 : 신, 구약 성경
- 참가비 : 1인 2,000원
- 강사 : 함원식 신부(영덕 본당 주임)

■ 예신 전체모임

- 일시 : 6월 18일(주일) 12:00
- 장소 : 교구청

■ 주일학교 학부모 특강

- 주제 : '성과 생명 그리고 사랑과 책임'
(청소년 성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특강)
- 일시 : 6월 25일(주일) 14:00 ~ 18:00
- 장소 : 교구청 대강당
- 대상 : 주일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및 주일학교 교사
- 준비물 : 필기도구
- 회비 : 1인 5,000원
- 신청마감 : 6월 21일(수)까지

■ 교구장 사목방문 일정 안내

- 6월 11일(삼위일체 대축일) : 풍기 본당
- 6월 18일(그리스도의 성체성령 대축일) : 화령 본당

■ 안동가톨릭미술가회 창립전시회

- 일시 : 6월 13일(화) 17:00 - 18일(주일)
- 장소 : 안동 예술의전당(5갤러리)

■ 농은수련원 어르신 피정

- 주제 : 말씀과 함께하는 은빛청춘
-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30명 이내
- 일시 : 6월 16일(금)14:00-17일(토)13:00
- 장소 : 농은수련원
- 피정비 : 1인 6만원(숙식, 피정비 포함)
- 신청 및 문의 : 054)652-0591/ 010-2785-0591

■ 성주 소성리 평화미사 안내

- 대상 : 이 터에서 사드 배치를 막고
평화를 일구려는 안동교구 신자들
- 일시 : 6월 19일(월) 15:00
- 장소 :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 함께함 : 정평위, 가농, 생명환경연대, 민화위

■ 꾸르실료 월례 미사

- 일시 : 6월 19일(월) 20:00
(매월 셋째주 월요일)
- 장소 : 송현동성당
- 꾸르실리스따라면 누구나 참례 가능

■ 농은수련원 부부피정

- 주제 : 미, 사, 고(미안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 대상 :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부부(15쌍)
- 일시 : 6월 24일(토)14:00-25일(주일)13:00
- 장소 : 농은수련원
- 피정비 : 부부 12만원(숙식, 피정비 포함)
- 신청 및 문의 : 054)652-0591/ 010-2785-0591

■ 독서치료와 함께 하는 어머니 교실

- 주제 : 나를 알면 아이의 마음이 보여요!
- 대상 : 주일학교 자모 혹은 관심 있는
누구나 가능(일반인 포함)
- 인원 및 기간 : 10명 이내 / 주 1회 4회기
- 회비 : 총 6만원
- 장소 및 일시 : 신청본당 상황에 맞게
일시 조절하여 현장에 진행
- 신청 및 문의 : 농은수련원
054)652-0591/010-2785-0591

■ 건강한 가족 만들기(Family wellness)

- 일시 : 7월 1, 8, 15일(토) 14:00 - 17:00
- 대상 : 초중등 자녀를 둔 부모 20명
- 장소 :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원 관구 4층(송현동)
- 참가비 : 1인 5만원
- 신청 : 6월 20일까지 010-6561-8835

■ 제16회 초록빛 교실

(주제 : 숲은 우리의 쉼터)

- 일시 : 7월 29일(토) 14:00 ~ 30일(주일) 15:00
- 장소 : 봉화 우곡성지
- 대상 : 생명과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가족/
개인/본당별 단체(선착순 150명)
- 회비 : 1인 20,000원(3식 및 간식 포함,
숙박은 텐트 또는 피정의집 이용)
- 신청 : 6월 30일(금)까지
사목국 054-858-3114~5
초록빛 교실 담당자 010-3827-2275

■ 울진 베네딕도교육관 이용안내

- 각종 세미나·연수·개인·단체피정
- 숙박·자체취사 가능
- 대강의실, 나눔방 2
- 문의 : 054-783-6684, 010-5348-3431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 (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제 4장

혼인의 사랑

대 화

138. 상대방을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이는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며, 그가 살아가고 스스로 생각하며 행복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자기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도 상대방의 말이나 생각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저마다 서로 다른 경험을 하고, 모든 것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며, 자신들만의 관심사와 능력과 직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본심, 그 사람이 깊이 고민하는 것의 중요성, 거칠게 표현된 것이라도 그들의 말의 본뜻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들의 깊은 고민을 이해하며 그러한 고민들을 출발점으로 하여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139. 열린 마음을 지니십시오. 자신의 좁은 생각과 견해에 집착하지 말고 생각과 견해를 바꾸고 넓힐 준비를 하십시오. 나의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을 결합시키면 이를 풍요롭게 해주는 새로운 종합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려는 일치는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 안의 일치’, 또는 ‘조화로운 다양성’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풍요로워진 형제적 공동체 안에서는 차이가 공존하고 그 차이를 존중하며 서로를 인정하면서도 모든 이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개성과 특성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서로 같아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순간에 ‘끼어들’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쁜 감정이 대화를 방해하지 않도록 그 감정을 잘 조절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상

하지 않도록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들을 논의할 때 상대방이 더욱 쉽게 받아들이고 용인할 수 있는 언어와 어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일종의 양갈음으로 화를 내지 말고 가르치려는 말투를 피하면서 비판을 해야 합니다. 가르치려는 말투는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꼬며 비난하고 상처를 줄 뿐입니다. 부부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의견 충돌을 보입니다. 그 대부분이 사소한 것들에 관한 의견 충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은 그들이 대화하는 방법이나 태도인 것입니다.

140.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태도와 애정을 보여주십시오. 사랑은 최악의 장애도 극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또는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면,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의 이해를 구하며 하는 말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마치 '경쟁자'인 것처럼 두려워하게 만드는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도록 합니다. 논쟁에서의 승리나 다른 이의 인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결단과 신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입지를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41. 끝으로, 알찬 대화를 위해서는 말할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내적 부요가 필요합니다. 이 내적 부요는 독서와 자기 성찰, 기도, 우리 주변 세상에 대한 개방성으로 증대됩니다. 말할 내용이 없으면 대화는 지루하고 알맹이가 없는 것이 됩니다. 부부가 내적 부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다른 이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지도 않으면 가정생활은 숨 막히게 되고 대화는 빈곤해집니다.

열정적인 사랑

142.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러한 부부 사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부부 사랑은 “인간 전체의 행복을 다 포괄한다. 따라서 이 사랑은 몸과 마음의 표현을 특수한 품위로 풍요롭게 하고 또한 이 표현들을 부부 애정의 특수한 요소와 표시로 삼아 고귀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즐거움이나 열정이 부족한 사랑은 인간의 마음이 하느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비가는 초자연적 사랑과 천상의 사랑의 상징들을 우정이나 효도, 또는 봉헌보다는 부부 사랑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바로 부부 사랑의 전체성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혼인에 관련된 감정과 성에 대하여 이제부터 찬찬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에 계속 -



살림터 이야기

소중한 경험

정규석 프란치스코
(안동가톨릭문인회)

오랜만에 아내와 서울을 다녀왔다. 그동안 멀다고만 생각되던 서울 가는 길이 더 편해지고 가깝게 느껴진 것은 동서남북으로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유도 있겠지만 가족들이 그곳에 사는 탓도 크리라. 이번 나들이는 딸들의 이사 때문이었다. 두 딸은 전세 아파트에서 8년을 살았다. 지은 지 30년도 더 지난 소형 아파트인데다가 맨 꼭대기 층이어서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웠다. 그래도 집값 비싼 서울에서 그 정도의 생활을 하는 것만도 감사하며 아무런 불평 없이 지냈다. 그러다가 둘째가 취직을 하게 되면서 직장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 부득이 새 집을 구해야 했다. 이번 이사는 모든 것을 딸들이 주도하도록 맡기고 옆에서 지켜만 봤다. 본인들이 직접 살집을 구하고, 계약을 하고, 이삿짐센터를 정하면서 귀중한 체험을 해보라는 의도에서였다. 신축된 빌라여서 살던 집과는 대비가 되었다. 모든 시설이 깨끗하고 편리했다. 집주인이 같은 건물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산다고 했다. 그래서였는지 구석구석 세밀한 손길로 내 집을 지은 정성이 느껴졌다. 주인부부도 딸들을 마음에 들어 했다.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여러모로 잘 맞는 집을 선택한 것 같아 안심이 되었다.

아직 미혼인 딸들이라 변변한 살림살이 하나 없는데도 이삿짐을 풀어 정리하기까지 하루가 걸렸다. 일이 대충 마무리되자 네 식구가 한자리에 모였다. TV도 인터넷도 연결되지 않아 오롯이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딸들은 처음으로 이사를 준비하면서 겪고 느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았다. 1주일을 정리했는데도 전혀 정리한 티가 나지 않더라는 얘기, 사놓은 신발과 옷들이 그렇게 많은 줄 미처 몰랐다는 얘기, 사는 것보다 버리기가 더 어렵더라는 얘기, 계획한 일정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 제때 이사를 할 수 있을까 마음 졸였던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동안 우리부부가 걸어왔던 길을 뒤따라오는 딸들을 보니 생각이 많아졌다.

이사는 삶의 중요한 활력소가 된다. 익숙한 장소에서 낯선 곳으로의 이동은 두려움과 기대를 동반한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긴장하게 되고 타성에 젖은 생활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쌓여있는 삶의 흔적을 뒤돌아보는 기회가 된다. 어느새 버거워진 삶의 무게를 느끼지만 소유의 욕망은 더 강해져서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 고민하며 정리하고 줄여가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여백의 미를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이사는 뒤돌아봄이고 비움이며, 다시 공간을 채워가는 새로운 출발이다.

딸들은 첫 이사를 통해 또 다른 세상을 경험했을 것이다. 상업적인 이해를 앞세운 인간관계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배웠고, 생각 이상으로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도 알았을 것이다.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 않다는 사실에 실망했을 것이고, 그래서 더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성취감도 충분히 맛보았으니 소중한 경험이 되어 살아가는데 두고두고 힘과 용기를 줄 것이다.

앞으로 딸들은 몇 번이나 더 이사를 해야 한다. 나는 딸들이 이사를 하면서 단순한 주거지의 이동만이 아닌 또 다른 의미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앞만 보며 달려가던 걸음을 멈추고 한 번씩 자신을 뒤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